

해마다 대입고사를 치르는 날은 한국 전체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졸업보다 입학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미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에서 자신이 입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의 이니셜을 뜯는 다던지, 심래방 성의 방석을 가지고 있는다던지, 속옷을 가지고 있는 것등 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날은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합격을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합니다.

이 날의 가장 인기있는 선물은 잘 찍으라고 포크와 카메라, 잘 풀라고 휴지, 잘 붙으라고 옛이나 찹쌀떡을, 그리고 점수가 터지라고 폭탄등이 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수험생들에게 미소를 주기위해 생각한것입니다.

뭐니 뭐니해도, 이 날은, 9시에 문을 여는 공공기관이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엽니다. 그리고 시험장의 입구는 차가 통제되고, 늦으면 경찰이 오토바이로 데려다 줍니다.

이 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되,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이 동안, 추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기다립니다.

이 때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우리는 입시한파라고 합니다.